

1960年の 特殊圖書館

— 주로 서울特別市에 所在하는
特殊圖書館을 中心으로 —

朴 啓 弘

序 論

1960年은 여러가지 뜻에서 變化의 해였다. 나라에는 一大變革이 있었고 國際情勢는 散發의인 熱戰으로 새로운 暗雲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圖書館界는 無風地帶인양 큰 變化라고는 별로 없었다. 勿論 圖書館을 利用하는 閱覽者에 따라 다르겠지만 特殊圖書館界에는 別로 큰 變化를 보지 못하였다. (1) 이러한 事情은 역시 一般이 아직도 圖書館에 對한 偏見은 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歸因한다고 보겠다. 이 글은 다음에 列擧한 各圖書館을 相對로 蒐集한 情報에 依하여 1960年 1年間의 活動을 運營, 財政, 藏書, 閱覽, 特殊資料로 考察하고 新年度의 새로운 計劃을 본대로, 들은대로 記述한 것이다.

空軍中央圖書館, 交通圖書館, 國防研究院圖書館☆, 國會圖書館, 農業銀行圖書館, 美國公報院圖書館, 產業銀行圖書館, 英國大使館圖書館, 陸士圖書館☆, 中央工業研究所圖書館, 中央教育研究所圖書館, 韓國研究圖書館, 韓國銀行圖書館. ☆가 붙은 圖書館에 對하여서는 未確認報告에 依하여 言及하게 되었다.

1. 새로운 圖書館

이 글에서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위의名單에서 이미 그 性格이 밝혀 졌으리라고 믿는다. 그 中에는 學校圖書館 또는 一般圖書館의 範疇에 들어갈 몇 圖書館도 包含되어 있으나, 그 圖書館이 所屬하는 機關이 역시 特殊한 性格을 갖은 까닭에 特殊圖書館으로 取扱하는 것이다. 特殊圖書館이란 一般 公共圖書館과 달라 藏書, 閱覽, 奉仕, 所屬機關의 性格에 따라 그 特殊性이 달라지는 까닭에 여러 特殊圖書館을 一括해서 論及한다는 自體가 無理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皮相의이기는 하지만 一般論이란 언제 어떤때지 있드시 이 글에서도 그 表面화된 事實만을 추려서 一般的인 考察을 하려고 한다.

먼저, 지난 1年동안에 새로된 圖書館으로서는 지난 9월에 開館을 본 英國大使館圖書館이 있다. 이 圖書館에는 現在 航空便으로 接受되고 있는 30餘種의 英國定期刊物(一般)을 비롯하여 幾百卷의 藏書를 收藏하고 있는바 앞으로 3個月 以內에 約 4千卷을 接受할 計劃이 서 있다고 한다. 特記할 것은 當圖書館에서는 英國

에 관한 參考質疑는 무엇이든 當場에서 또한 늦어도 二週日以內에 答辯을 하여준다는 것이다. 아직도 開館初期라 完全한 機能을 發揮 못하고 每週 月, 火, 木, 金의 4日間만 開館하는 故로 一般閱覽者의 不便이 많이 있으나 來年度 부터는 可能한 限 每日 開館하여 閱覽者에 最大限 奉仕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곳에는 앞으로 英國의 (英聯邦) 政治·經濟·文化·各方面에 關한 英國出版物을 完全히 備置하여 두려고 한다니 韓英國際文化交流에 크게 功獻되리라 믿는 바이다.

이 외에 比較的 새로운 圖書館으로서는 昨年 開館을 본 空軍中央圖書館과 農業銀行圖書室을 들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昨年에 開館 또는 再整理開館된 것임으로 個別的인 言及은 아니하기로 한다.

2. 運 營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特殊 圖書館은 各己 그 所屬機關의 性格에 따라 그 特殊性을 달리하는 까닭에 圖書自體로서의 變化란 期待할수 없다. 一般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에서는 4.19 以後 豫算面에서나 運營面에서 큰 進展을 본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特殊圖書館界에는 별다른 큰 變化가 없었다. 運營面에 있어서는 例年과 다름 없으나 特殊圖書館이 他圖書館에 比하여 比較的 順調로운 發展을 하여 온 것은 各圖書館이 所屬機關의 絕對的인 必要에서 發生된 까닭이라고 하겠다.

上記 13個 圖書館中 지난 一年間에 職員의 增加를 본 圖書館은 U. S. I. S. 圖書室로 이곳에는 새로운 參考司書職이 마련 되었다. 其他의 圖書館에서는 例年과 다름없이 적은곳은 2名⁽²⁾에서 많은곳은 30名⁽³⁾의 職員이 受苦하여 왔다. 特殊圖書館에서는 比較的 他圖書館들에 比하여

人力의 濫費가 적은편이나 아직 2.3의 圖書館에서는 無能한 人力의 濫費가 있는곳이 있다. 더욱이 그것이 國民의 稅金에 依하여 運營되는 곳이 더하다는 事實은 反省하여야 할 事實이다.

運營을 擔當한 여러분은 勿論 所屬機關의 運營者들도 모두 各自圖書館運營의 合理化를 爲하여 努力하길 믿으나, 지난 一年間에는 뚜렷한 成果를 갖어온 것 같지 않다. 圖書館 運營의 合理化와 能率化는 現在까지 거의 通例가 된 觀念 即 圖書館을 無能力者 또는 次대꾼의 待機所로 여기는 觀念으로서 是 不可能하다. 그러나 筆者는 여기서 一大革新을 主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主張하는 “그것이 現實이다 어찌할 道理가 없지 않는가” 라는 主張을 支持한다는 말은 勿論 아니다. 圖書館事務는 技術事務라고 하지만 必要한 器具(文獻)와 大學卒業程度의 常識만 있으면 短時日間의 訓練으로 可能한 것이다. 그럼으로 職員의 再訓練, 또 職務遂行의 圓滑을 爲한 定期的인 職員會 등은 가장 손쉬운 打開策이 아닐까 한다.

3. 豫算, 藏書

먼저 豫算面을 살펴보면 大部分의 圖書館의 豫算(圖書購入費)이 昨年과 거의 同額이다. 1,000萬圓以上의 圖書館이 4館 500萬—1,000萬圓이 4館, 100萬—500萬圓이 2館, 100萬圓以下가 1館; 其他 自體의 豫算없이 所屬機關의 特殊配定을 받은 곳이 3館인바 昨年보다 減少된 것이 없을뿐 아니라 新年度에는 多少의 增加가 있으리라 고 믿어지는 것은 좋은 現象의 하나이라고 하겠다. 韓國의 現實로 보아 이들 圖書館이 順調로운 發展을 보려면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20~30%의 豫算增加가

있어야 할 것이다.⁽⁴⁾

藏書를 보면 各圖書館의 性格에 따라 그 部門이 모다 다르나 圖書購入費 1,000萬圓 以上の 圖書館에서는 1,600卷 以上 5,000卷, 500—1,000萬圓級이 800卷에서 1,800卷, 100萬圓以下는 500卷⁽⁵⁾, 其他는 500卷에서 1,000卷 程度의 增加를 보았다. 特記할것은 各圖書館이 모다 自己分野의 定期刊行物을 大量으로 具備하고 있는바 最高 336種에서 最下 20種까지의 多樣性을 보여주고 있다.⁽⁶⁾

新刊의 整理는 各圖書館마다 速히 整理되고 있으며 이것은 各館이 單一體系는 아니라도 既定된 整理方法에 積立된 資料이라고 볼 수 있다.

4. 閱 覽

各館마다 固定된 閱覽者를 가졌으며 日平均 많은곳은 150名 적은 곳은 3名으로 大部分이 昨年과 같은 比率이고 10餘名의 增加率을 보인것은 2館뿐이다.⁽⁷⁾ 閱覽傾向을 보면 各館마다의 特殊分野가 第一이고 例外로는 交通圖書館으로 大學이 首位라고 한다. 各館이 거의 모다 館外貸出을 하며 많은곳은 日平均 100卷 적은곳은 2.3日에 1卷程度로 昨年에 比하여 增減이 全혀 없다.⁽⁸⁾

筆者는 特히 4·19 前과後의 讀書傾向에 對하여 各館에 問談한바 回答은 모다 “變變化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各館이 特殊한 學生 또는 專門家를 相對로 한다는것, 둘째 社會의 變動은 專門的인 研究者에게 何等의 變化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것, 셋째로 4·19 以後 사람이 모다 思索이나 研究 또는 讀書보다 “레모”나 日本 流行歌 배우는데 더 興味를 느끼게 되었다는것 세가지 中의 하나 이거나, 둘 또는 그모다에서 온 結果일 것이다.

5. 特殊資料 또는 施設

現在 特殊資料로서 microfilm 또는 microcard 等 microform 資料를 蒐藏하고 있는 圖書館은 2館, microcamera 와 Film-Reader 를 備置한곳이 2館, Film-Reader 만 備置된 곳이 2館, Duplicator 를 備置한 곳이 2館, 電蓄이 備置된곳이 2館으로 이 中에 今年度에 microcamera, Film-Reader 及 Duplicator 를 新設한곳이 1館, 電蓄을 備置한 곳이 1館이다.⁽⁹⁾ microfilm 의 年間購入은 한 圖書館은 48卷 또다른 圖書館은 4(?)卷이다.⁽¹⁰⁾ 各種(敎育) 檢査資料를 購入한곳이 1館⁽¹¹⁾이 있으며 年間 繼續的으로 microfilm 이 利用된곳은 單 한곳 밖에 없다.⁽¹²⁾ 이러한 施設과 資料를 蒐集하게 된것은 大端히 반가운 現象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施設과 資料들을 더욱더 蒐集 備置하여 새로운 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十分 發揮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結 論

各圖書館에 있어서 資料의 整理나 組織은 어느 程度 本軌道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圖書館은 週回의 沒理解와 낡은 觀念으로 말미암아 社會에 對한 完全한 機能을 發揮 못하고 奉仕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도리켜 보건데 1960年은 大部分의 特殊圖書館에 있어서 큰 發展이나 變化없이 지나 갔다. 그러나 오히려 그 無變化의 德인지는 몰라도 圖書의 整理는 많이 進展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今年 1年은 앞으로의 發展과 奉仕를 爲하여 基礎를 닦고 整理를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해에는 좀더 새로운 方案으로 運營을 研究하고 充分한 豫算으로 藏書와 施設을 擴張하는 同時에 一線司書들도 各自 自身

의 職務를 研究하여 實力을 養成하여 이 미 가진 資料와 施設만이라도 十二分 奉仕에 利用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自己訓練과 同時에 一般에게도 讀書週間포스터 攻勢단 取하지 말고 實際로 讀書하고 研究할 수 있는 資料와 場所와 機會와 雰圍氣를 만들어 주기에 努力하면 1年後에는 圖書館 利用者뿐만 아니라 一般社會에도 크게 奉仕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5個年計劃, 10個年計劃들을 한다고 한다. 아무리 貧寒한 살림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2個年計劃쯤이야 못세울 것인가? 來年은 圖書館人 自身들의 實力養成의 해로 來後年은 奉仕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原稿紙 30枚라는 義務를 다 하고저 한다. (筆者 韓國研究圖書館 司書長)

(1) 이 글은 筆者가 市內 各圖書館에 電話로 連絡하여 얻은 具體적인 數字에 依하여 可能하게 되었다. 各圖書館의 여러가지 事情에 依하여 그 具體적인 數字를 一一히 밝힐수는 없지만 精誠것 情報를 提供하여 주신 各 司書님들에게 길이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따라서 이 글은 圖協에서 請託 받은 바 特殊圖書館의 1年이란 題目의 一部밖에 안되며 또 地方의 特殊圖書館에 對하여서는 調査할 時間적인 餘유가 없어 言及못함을 謝過 드리는 바이다. 또한 市內에 所在하는 圖書室로서 對象에 들지 않는 곳은 그 圖書館이 一考의 價値가 없다는 뜻에서 除外된 것이 아니라 對象이된 圖書館의 事情에 比하여 큰 差異가 없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割愛한 것이니 널리 容恕를 바라는 바이다.

(2) 中央教育研究所圖書室
英國大使館圖書室

(3) 國會圖書館

(4) 復興部の 統計에 依하면 지난 1年間의 物價指數는 17% 上昇되었으며, 此外에 出版物의 增加와 製本費等の 增加로 보아 이 數字는 無理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5) 中央教育研究所圖書室의 境遇를 보면 購入數보다 寄贈으로 入手되는 數量이 더 많다고 한다.

(6) 最高는 空軍中央圖書館의 336種 그中學術誌는 80餘種, 다음은 韓國研究圖書館의 219種으로 그중 10餘種을 除外하고는 모나 人文社會科學分野의 學術誌로 韓國唯一의 精選된 定期刊行物로 年間增加 17種, 第3位가 韓國銀行 圖書室로 200餘種 中 約 半數가 經濟關係로 經濟分野에서는 韓國에서 가장 많으며 年間增加種目無, 다음이 國會圖書館의 160種(政治·經濟分野)과 純工業關係 中央工業研究所 圖書館의 100餘種等이다.

(7) 最高 150名—美國公報院圖書室
最下 3名—中央教育研究所
增加 13名—韓國圖書館(日平66名)
10名—中央工業研究所 圖書館
(日平 40—50名)

藏書數가 가장 많은 國會圖書館은 日平 60名으로 昨年과 同一.

(8) 首位는 交通圖書館(日平 100卷)

(9) microcamera Film Reader Duplicator는 中央工業研究所圖書室
電帶은 國會圖書館

(10) 韓國研究圖書館 48卷
韓國銀行圖書室 4卷(?)

(11) 中央教育研究所 圖書室

(12) 韓國研究圖書館 microfilm 253卷 所藏